

식생활의 과학화 유도해야

유 창 열
한국사료첨가양행 대표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촉진 캠페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협소한 국토에 많은 인구, 빈약한 초지 기반과 만족스럽지 못한 국민 소득, 경제개발의 박차에 따른 단백질원의 충당등 수많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양계 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은 너무나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이 항상 느껴온 바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제 식단의 과학화도 은행에 돈을 저금하는 알뜰살림과 버금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왔다. 주어진 생활비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영양소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은 양계산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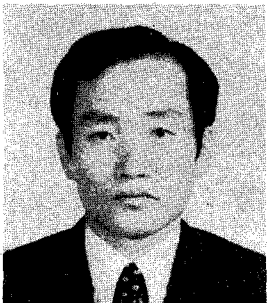
전래되어 오는 그릇된 인식보다, 또한 맛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우리들의 특유한 고집때문에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육가공기술은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양계산물을 위한 가공식품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으며 닭고기 고유의 맛을 즐기기엔 아직 미흡하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계란을 각종 유제품과 과자및 식빵류에 사용을 권장하여 소비를 간접촉진시킨다면 국민의 영양분 섭취와 이용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나 어려운 점은 제품의 과당 경쟁과

소비자들의 값싼 상품의 선호가 가장 큰 장애요소일 것이다. 때문에 품질과 가격과 효율의 함수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가공식품은 조리에 간편하고 저장보관에 용이하나 요즘 국내외에 흔히 자연식품의 선호 경향때문에 소비촉진에 흠이 따를 수 있다. 고로 가공식품의 기술의 개발과 품질보장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서구사회에서 가공식품이 보다 보편화 되어 있고 이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를 여러각도에서 음미하며 연구해야 될 줄 안다.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에 대한 제언이 이 이외에도 많겠으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은 국력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성과 효율의 집합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생활의 과학화는 곧 우리 모두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



소비자 구매의욕과 구매특성 파악

서 국 성
계명실업전문대학 축산과교수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특성과악과 구매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는다. 지속적인 소비확대가 이루어져야만 양계산업이 전진하게 발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위생적인 생산물을 값싸게 어느곳에

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생적인 생산물은 최신시설의 도계에서 처리된 계육(부분육)이나 선별된 다양한 계란포장품으로 공급하고, 생산물의 안정된 판매가격은 유통의 근대화를 이룩하여 중간비용을 절감한 후 냉장시설을 갖춘 슈퍼마켓이나 기존 정육점을 이용한 판매망 구축 및 양계생산물 전문 취급상을 통하여 판매장소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다.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양계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활동, 다양하고 손쉬운 가정요리법 및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 보급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계란을 난분과 난백

등으로 분리하여 식품가공원료, 가정이용, 애완용 동물의 먹이 등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량음료의 개발 및 계육의 육가공, 야외도시락, 전포 등을 만들수 있겠고 좀더 나아가서는 양계산물을 이용한 아침, 점심, 저녁의 1일 또는 1주일의 영양식단 혹은 미용식단을 짜서 널리 홍보하여 대량소비를 촉진시켜 나가야 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라나는 세세대들의 식생활 관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 조합원들이 각급학교 학생들과 자매결연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역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범농장 견학, 생산물의 홍보, 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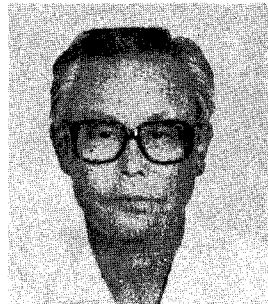
이 요리실기대회, 생산물의 열가판매 및 글짓기 대회등의 활동들을 통해 자발적인 단체급식과 소비확대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꾸준한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지만 그 성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대규모 기업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거나 생산농민이 힘을 합친 조합을 통하여 꾸준히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산조정 및 유통의 근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제품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

우리 양계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산물의 생산에 전념하여 소비자가 믿고 다량으로 소비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이다.

지난날 소독을 잘못하여 계란에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겠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되어 마스크를 통해서 발표되었을 때 백번, 천번 또 수억의 비용을 들여 소비촉진 광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비자가 양계산물을 소비해주시 않을 것을 먼저 고려하여 모든 양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각기 자기 책임을 다하여 보다 좋고 영양가 높은 그야말로 영양식품으로서 손색없는 계란과 계육이어야 소비자 스



품질좋은 계란, 닭고기 생산해야

강 서 호

전국계우연합회 부회장/전 신도계우회장/
채린양계업 경영

스로가 다른 식품보다 많이 소비할 것임은 물론이며 우리는 시중 소비자들이 차츰 양계산물의 질에 대하여 주의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산자 자신이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만 하면 팔린다는 시대에서 질좋은 생산품이 아

니면 팔수 없는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시기에 양계업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이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인식해야겠다.

다음은 양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다. 지금의 양계산업의